

떠오르는 수출 효자 산업, 방산 생산 현장 방문

- ‘천궁 미사일’ 등 생산하는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 방문

- 방산 수요 높은 중동과 FTA 네트워크 확대로 우리 방산 경쟁력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6일(수) 경북 구미시 소재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 사업장을 방문해 최근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가 커지고 있는 방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연이은 아랍권 국가와의 FTA 체결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로 중동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고 무기류 관세가 철폐되면서, 방산 수요가 높은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우디, 카타르가 세계 무기 수입의 2위·3위를 각각 기록(23,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LIG넥스원은 장거리공대지 유도무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나 지상 등에서 발사된 적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인 ‘천궁Ⅱ’는 우수한 작전성능으로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2023년 한-UAE CEPA, 한-GCC FTA 등 아랍권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향후 중동으로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무기류가 수출 확대를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업도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수출 우상향 추세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에 걸친 주요 거점국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해 기존 전 세계 GDP의 85%에 달했던 FTA 네트워크를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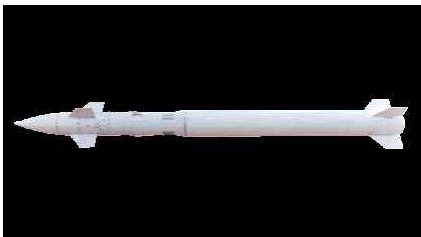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830)
		담당자	사무관	박태현 (044-203-5833)



□ 방문 개요

- 일 시 : '24. 3. 6.(수), 9:00~10:30 (90분)
- 장 소 : LIG넥스원 구미1하우스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등
 - (기업) 이건혁 LIG넥스원 생산부문장 등
- 주요 내용 : 생산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FTA 활용 및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주요 제품

구 분	제 품 설 명
중거리 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	- 항공기 교전 능력 강화 - 탄도탄 요격능력을 구현해 적의 공중 위협에 대응
	
장사정포 요격체계	-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핵심지역 및 주요시설 보호
